

소방안전봉사상 대상수상에 임하여

김시화 <청주소방서 소방교>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아 보인다.

사무실 앞 광장가의 은행나무가 노란옷으로 바뀌 입기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하나, 둘, 그 옷을 벗기 시작한다. 겨울이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소방인들에게는 이제 화재기의 시작인데 벌써 한해의 끝도 두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구나 생

각하니 많은 생각들이 교차된다.

남자 나이 40이면 불혹(不惑)이라 했건만 50이 가까와서도 모든 것이 새롭고 늘 처음인 것 같아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해 왔는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주최하는 소방안전봉사상을, 그것도 대상까지 수상하게 되다니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다.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고 정말 기뻐다. 아니, 나보다 내 아내가 더욱 기뻐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병(持病)으로 술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시부모님의 시중을 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심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였던 아내의 얼굴을 보니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맺힌다.

이번의 소방안전봉사상대상을 내 아내에게 바치고 싶다.

하늘이 그렇게 맑아 보이기도 처음이요, 내 아내의 얼굴이 그렇게 환해 보이기도 처음인 것 같았다.

그동안 20여년의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다. 수십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일도 겁없이 했고, 짙은 연기를 마시며 울기도(?) 많이 했다. 내가 구출한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할 때는 가슴 뿌듯한 보람도 느꼈다.

동료 직원이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할 땐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소방관 초기에 한때는 모든 일이 어려워 사직서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낀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내가 소방에 몸담고 있는 것은 내 목숨 귀한 만큼 시민의 목숨도 귀하다는 좌우명 때문이다.

이 기회에 동료소방관들의 자랑도 되며 아울러 교훈도 남겨 주는 화재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1977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의 미군 미사일적재 차량화재의 진압은 화재현장에서의 순간적인 판단이 그 결과의 차이를 얼마나 크게 가져 오는가를 알수 있게 하는 좋은 예가 된다. 당시의 상황은



매우 절박하였다. 화재 접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고속도로는 상하행선 모두 차량통행 중단상태였고, 전방 2km지점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미사일적재 차량이 불에 타고 있었다. 바로 눈앞에서는 미군 병사가 우리를 막으며 어서 피하라는 몸짓을 하며 무엇인가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를 무시하고 화재 차량에 계속 접근하였다. 당시, 우리는 그 미사일의 정확한 성능은 모르는데 재 막연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미사일일 것이라는 추측만 갖고 폭발을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출동대원 모두 같이 죽자”라는 마음으로 화재차량에 다가갔던 것이다.

즉시 반화부위를 진화하는 한편 열을 받은 미사일에 소화수를 뿌려 냉각시키는 양동작전을 벌였다. 그 결과 미사일의 폭발을 막고 차량의 화재를 진압했다. 그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자 미군 병사가 다가와 “코리아 화이어맨 넘버원”이라고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 후에 안일이지만 그 호크미사일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폭발력이 강한 것이었으며 만약 우리가 미군 병사의 말대로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대피하여 미사일이 폭발하였더라면, 우리가 대피하였을 장소는 물론, 인근 차량까지 유효반경안에 들어 있어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였을 것이고 우리 소방관의 목숨 또한 온전치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 말고도 화재 발생시마다 우리 소방관 또는 시민이 느끼게 되는 교훈은 꼭 있게 마련이며, 우리 소방관들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 아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지하실이나 비교적 창이 적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공기호흡기의 무게, 시간의 제약, 시각장애 등으로 구조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가 갇힌 사람 못지않게 소방관에게도 가장 안타깝고 안쓰러운 때이다.

아무리 많은 화재를 진압했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으로 구조가 늦어져 신체에 장애가 오거나 생명을 잃은 몇 사람의 불행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소방관으로서의 당연한 죄책감이리라.

우리 국민 모두가 크던 작던간에 모든 화재는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며,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닥쳐올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주었으며 좋겠다.

차제에 우리 소방관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경찰이나 군인은 순직하게 되면 국립묘지안장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유공자 연금지급이 되는 데 반해 우리 소방관이 순직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고 국가유공자 연금지급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 점은 소방관 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 사기 앙양과 더불어 더욱 열심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소방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상규 이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소방안전봉사를 수상하는 다른 소방관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불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서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사님 그리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소방가족 모두에게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